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광장

www.council.jeju.kr

Vol. 122
202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발행일 2025. 7. 1. ISSN 2671-97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기념사업회, 제주4·3국제평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제주4·3 평화레퀴엠'이 '제주의 아픔, 세계의 평화로'를 주제로 지난 6월 24일 오후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소속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니 성당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제주도의회, 로마서 국제협력 외교 행보

6월 21~25일 공식 방문
양 지역 국제교류 모색해
4·3국제화에도 기대감 높여
연대강화·평화 실현에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이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로마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문화 교류는 물론 협력의 물꼬를 텄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무대를 마련해 '제주4·3의 세계화'를 향한 여정에 기대감을 높였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하성용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정엽(국민의힘·대륜동)·한동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의원이 함께한 대표단은 6월 24일 오전 로마 수도 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로마 수도 광역시에서 피에를루이지 산나 부시장과 타치아나 비올기니 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의 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도시 간 연대와 우호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외교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와 인권 증진, 관광·문화 교류 등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류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연환경 보전과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4·3의 역사와 교훈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 23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장된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 참배했다. 또한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김준구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4·3 행사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제주-로마 간 국제교류 협력 확대에 대한 자문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2면**

지면안내

2 제주도의회 대표단 로마 방문
3 후반기 개원 1주년
7~8 상임위 이슈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의 선율 '4·3 평화 레퀴엠'…로마서 '주목'

추진위·도의회 등 공동주최
'제주4·3 평화 레퀴엠' 무대
6월 24일 로마 현지서 선봬
'4·3 평화 비전' 관심·기대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이번은 '음악'이 제주4·3 세계화의 여정에 함께했다. 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기념사업회, 제주4·3국제평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제주4·3 평화 레퀴엠' 공연이 바로 그것.

지난 6월 24일 오후 로마 교황청 소속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니 성당에서 성황리에 펼쳐진 '제주4·3 평화 레퀴엠'은 제주와 현지인의 입과 연주를 통해 제주4·3의 평화·상생·치유 메시지를 품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제주의 아픔, 세계의 평화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장인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제주도의회 대표단과 오영훈 지사, 김준구 주이탈리아 한국 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까를로 알베르토 앙골라 교황청대사, 정연정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원장, 무스레히너 다흐슈타인 디알로그 국제회의 의장, 피셔바흐 람사우 전시장, 알리체 카데두 독일정부 문화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비롯한 로마 시민들이 참석해 4·3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했다.

이날 선보인 평화 레퀴엠은 제주 출신 문효진 작곡가가 제주 고유의 정서와 서사를 반영한 현대적 추모곡이다. 로마오페라극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 40명과 '복스 인 아르떼 앙상블', 제주어린이 13명으로 구성된 중창단 '제주 유스코러스'가 협연해 진혼 미사곡을 비롯해 제주 민요인 '설운아기', '이어도사나' 등을 묵직한 울림으로 채웠다.

공연이 끝난 뒤 공연장을 찾았던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하는 한편, "세계 평화라는 제주4·3의 비전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는 소감을 전하는 등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셨다"라면서 "평화 레퀴엠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를 여는 작은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창우 주교는 "순교자들을 기리는 성당에서 제주4·3 평화 레퀴엠 공연을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제주4·3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수 의원은 "레퀴엠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제주와 세계,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연에 앞서 제주4·3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문창우 주교 주례로 '한국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 공동 모색

도의회 6월 25일 로마서 포럼 개최
하성용 4·3특별위원장 및 발표자들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조해

제주4·3의 기억을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로마 현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25일 로마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국제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로마시가 공동주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삼다수가 후원했다.

'평화를 위한 연대-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하성용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좌장을 맡고 2025 다흐슈타인 유럽포럼 크리스티안 무스레히너 조직위원장, 4·3기념사업위원회 김지민 국제위원장,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 알리체 카데두 독일 문화부장관 특별보좌관, 불가리아 국영 라디오방송국 스토안 초하지에프 국제보도국장, 일본 오사카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의 김세연 씨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제주4·3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진실 규명 운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 운동의 사례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성용 위원장은 "오늘 발표자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모두가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임을 강조했다"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한 연대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대립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와 실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정의로운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새 비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

이상봉 의장 취임 1주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집중”

이 상 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제주 또한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나갈 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 정부와 함께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의회’,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과 함께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취임 1주년, 소회는

취임 당시 의정 방침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로 정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범도민 소비 촉진협의체 구성,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조기 추경 편성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이다. 이를 통해 ‘민생 경제활력 지원단’과 ‘범도민 소비 촉진협의체’ 등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책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외 복합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체감 속도가 더뎠다. 국제 정세의 불안, 국내의 안보 이슈와 잇따른 대형 사건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으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으로 민생 회복의 속도를 앞당기겠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 운영 방향은

이 기구는 정책 목표 수립부터 예산 확보, 기대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제주형 국정과제’를 패키지 형태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능별로 실무 협의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남은 기간 의정활동 계획은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는 ‘환경’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 이재명 정부 역시 2035년까지 제주를 ‘탄소중립의 섬’으로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제2공항 문제가 숙의 과정과 공론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고, 협치와 경청의 자세로 도민 목소리를 왜곡 없이 의정에 반영하겠다.

1 |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민생의회 실현 노력

-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및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2 |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 ‘견제와 감시’ 충실 수행

- 11회의 회기운영(128일)·790건의 의안 처리
-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운영
  - 행정사무감사 실시: 1,055건 시정 개선 요구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총 2회, 10일·의원 66명·514건
-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을 통한 자격검증

3 |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도의회-도 협력 체계 강화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관련 정책협의회 개최(’24. 7. 19.)
-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25. 1. 23.)
- 새 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회 개최(’25. 6. 27.)

4 |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
- 저출생·고령화 실태 점검·대안 모색 위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경제 회복 정책발굴 위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5 | 도민의 삶을 우선 챙기는 민생 의정

- 도의회 ‘우리동네 소비실천 운동’ 전개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등 다각적 제도 개선 추진
- 장애인 건강권 및 사회활동 촉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

6 | 지역 현안 해결 견인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도·내외 공감대 형성 강화 지원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정책 설계·제도화 추진
-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도시분야 주요 현안 개선
- 제주관광 침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문화체육 분야 민생 입법 추진
-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및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체제 구축
- 교육복지 향상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7 | 4·3의 정의로운 해결 및 세계화 노력

- 4·3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
- 4·3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적극 추진 등

8 | 연구하는 의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추구

- 의회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14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9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

-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도민중심 입법활동 추진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내실화로 직접 민주주의 가치 보장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새 정부 출범, 제주 현안의 공동 대응에 협력”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개·폐회사

탄소중립 세부계획 수립,
제2공항 갈등 해결 등
지역 현안 언급 이어가

제주도의회 제안에 따라
정책협의회 본격 가동돼
“국정 과제 반영 대응” 기대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올해 세계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생태적 탁월함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주 내부에서는 환경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중산간 대규모 개발과 해상풍력발전 단지 추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도민 사회 내 의견이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환경은 곧 제주 경제의 근간이자, 도민 삶의 터전”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청정 자연과 생태의 가치는 우리 세대의 자산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의 섬 제주 실현을 공약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약속”이라며 “그러나 공약 반영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세부이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지역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가며 “올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깊은 피로감과 공동체의 분열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기대와 환경 훼손, 지역 생존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설계도가 그려진다”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정책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 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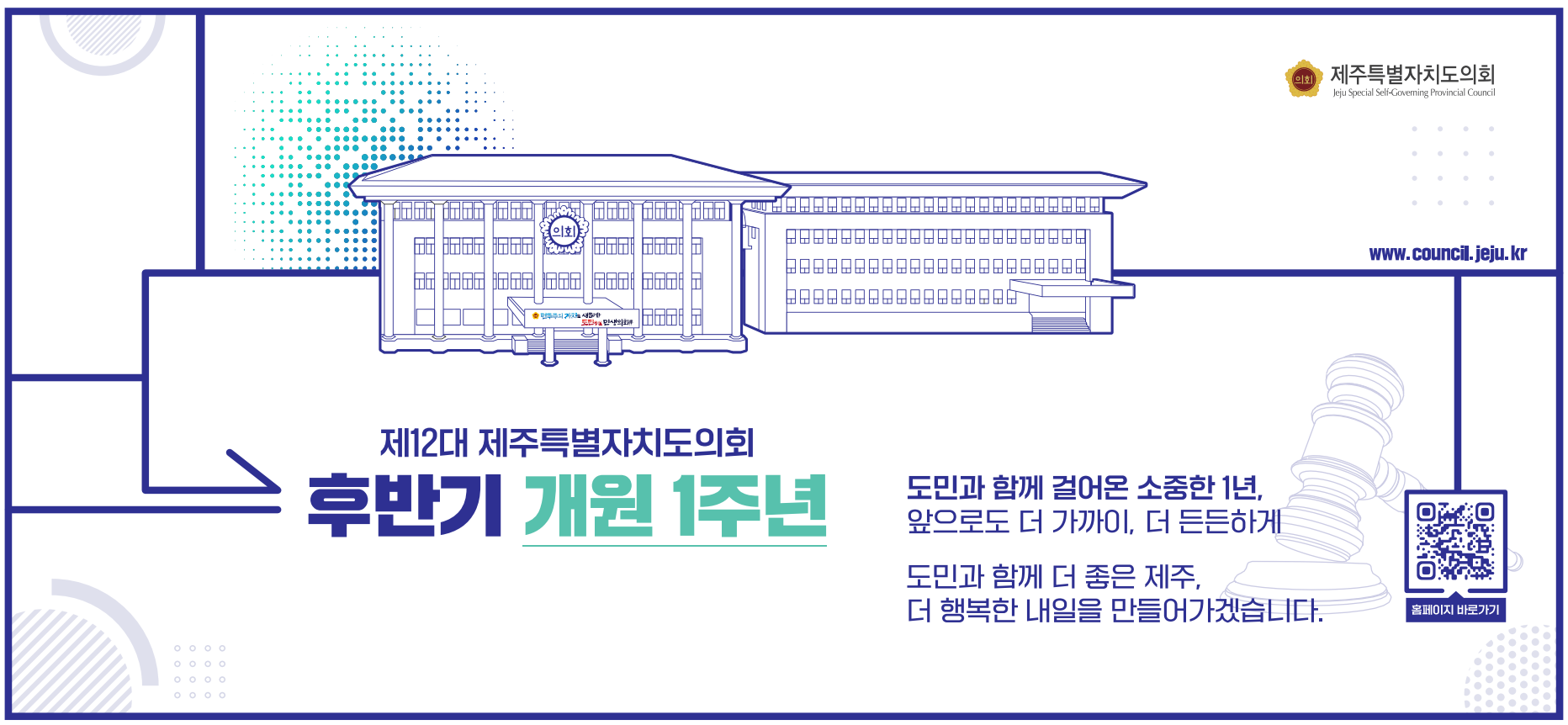
이어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이상봉 의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수정 가결했다”라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노동정책과 권익,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노동일자리과’ 신설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어 “하지만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 기능 재편 없이 인력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제기됐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과 성과 중심의 행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안했던 (가칭)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새 정부 대응 정책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며 “제주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정책 목표 수립에서부터 예산 확보, 법령 개정까지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정책협의체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간 일정…제43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결산 심사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주문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및
민생경제안정특위 활동 보고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6월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8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설 것과 지역화폐 소비 유도책 마련, 비효율적인 관광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포괄보조금 제도로 도체육회에 재정 분권을 강화했지만, 2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하지 않으면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책임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매년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등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추계를 요구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도민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라며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등 세수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집행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행정의 실행력과 재정 운용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핵심 개선 지표를 설정해 재정 운용의 철저한 진단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출범한 '4·3특별위원회'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제주4·3 완전한 해결, 후속 조치 마련해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서
관련 건의안 제출, 채택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건의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의 명예 회복과 치유, 기록 보존, 교육 확산 등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의 조속한 반영과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전환 △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제주4·3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교육부 협력 등이 포함됐다.

임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이자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에 대해 오는 8월 11일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12대 도의회 교섭단체 마지막 원내대표 선출

송창권

김황국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마지막 원내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과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1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제12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2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도의회·도·교육청 국정과제 협력체계 구축

이상봉 도의회 의장 제안
새 정부 대응 정책협 출범
총 72개 국정과제 공유
향후 대응 방향 논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제주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토대 마련하고자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6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이 참석해 도와 도교육청이 발굴한 총 72개 국정과제 제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가 발굴한 43개 과제는 총 7조 8,451억 원 규모로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 아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인재 수도 조성,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건립,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발전 체계 구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육성, 제주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교육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29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교육재정 특별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 4·3 평화 인권 교육의 국가교육 과정화 등의 핵심 과제와 농어촌 유학 모델 확산, 기초학력 보장 전문인력 확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등이 과제로 제안됐다.

이상봉 의장은 "총 72개 과제는 제주 발전을 견인할 소중한 밑그림"이라며 "이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돼 우선순위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제주만의 특수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해야 한다"라며 "도와 도의회, 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도 "교육청의 발굴 과제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 과제"라며 "논의된 내용들이 실행력을 갖추고 도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해상화물 공적 기능 도입, 국가 농·축·수산 탄소중립 선도 도시 구축, 인공지능 기반 관광 서비스 등 제안된 핵심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유된 과제들은 추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호형 의원,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영예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 민간기구, 세계자유민주연맹에서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

박호형 의원은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에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호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훈단체와 간담회…"보훈 가족 예우 강화"

도의회, 6개 단체장 초청
감사인사 전달·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도내 보훈 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혜선 광복회제주도지부장, 배문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몰군경도지부장, 강응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 오옥자 대한민국미망인회 도지부장, 김공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도지부장, 김영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도지부장, 송치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장, 양형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도지부장, 김달수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등 9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이정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륜동),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 강동원 사무처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지금의 평화와 번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다"라며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보훈단체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예우와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문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도지부장은 "보훈 가족의 숙원인 보훈회관이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조직 개편에 인건비 증대 우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수정가결
예산 불용액 문제도 제기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회의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증대 우려와 예산 불용액 문제가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조직 개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확충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력 증원에 따라 2029년까지 79억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해 예산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데드라인을 8월까지로 정한 가운데 차선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2일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인근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반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지역 현안 점검…적극 대응 주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지공원 부검실 불법 운영,
청소년 시설 방치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의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는 양지공원 부검실의 불법 운영,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시설의 방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양지공원 부검실이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부검실 설치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만 가능하다. 양지공원 이전에 제주의료원에서도 부검실을 운영했지만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총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시설을 리모델링했지만 운영단체를 선정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준비중인 제주도가 외국인 영유아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관 분야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실종사고 발생 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지휘체계와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도마 위

환경도시위원회

도의 기존 정책과 정면충돌
BRT 민원 관련 지적도 이어져

제439회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쓴소리들이 잇따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도시 외연 확산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도로 폭 기준 완화를 놓고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읍면지역 단독 주택의 경우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면 1필지당 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다"라며 "콤팩트 시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탑승 위치 혼란', '도로 정체', '접근 불편' 등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단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도 악화됐다"라고 비판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도 "사전결제 시스템과 스크린도어가 없는 상황에서 정류장만 고급화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체육회 비리…관리 책임 소홀 지적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포괄보조금 제도 악용한 사례” 지적
관광물가지수 개발 용역 “기준 이해 불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국민의힘, 애월읍갑)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얼마 전 발생했던 제주도체육회 비리 사건을 도마에 올리며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체육 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 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라며 “포괄보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상위법에 의거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정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태민 위원장도 “그동안 도체육회와 관련해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도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했던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연구 용역’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용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 분류 기준을 2020년부터로 정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시기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데이터라 그 기준에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용역 과정에서 물품 선정 등을 보면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며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잡아 물가 상승이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시설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대형 콘서트 개최가 불가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포럼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성과를 위해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정책, 재원 고갈 우려

농수축경제위원회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대응 주문
‘착한가게’ 대상 적극 지원 강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연동갑) 회의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탐나는전 인센티브 정책의 지방비 의존도와 관련해 “예측을 잘못하면서 현재 예산의 95% 이상을 조기 소진한 상황이다. 올해 국비로 90억 원을 지원하는데 매칭 지방비인 225억 원은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돼 제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 신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착한가게’ 지원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도민과 관광객의 소비 유도와 저렴한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착한 가게에 방역을 연 2회 이상, 전기요금 지원 상한액도 1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라며 “소극적인 정책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양영식 위원장은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RISE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도비로 투입됐지만,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교권 침해 방지 위한 제도 마련해야”

교육위원회

교사 심리 상태 지속 점검 강조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심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다”라며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도 “학교 민원 현장 지원단과 설문조사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게 있냐”라고 따져 물으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역시 “교권보호 5법이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지속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식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 통합시스템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담 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라며 “교육청 특정 부서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다. 전담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칭)제주동부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가 개발 행위가 제한된 부지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2029년 3월 개교 가능하냐”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민생경제안정특별위
“국비 부담률 지속 감소,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라며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했고, 새 정부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의무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라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국비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해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송영훈(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양영수(진보당, 아라동을)·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 위원, 교육위원회 고의숙(교육의원, 제주시 중부)·김경학(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예결위, 결산심사 대비 특별 강연회 개최해

정창수 소장 초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화북동)는 지난 6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결산 심사 대비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결산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강연에서는 실질적인 결산 심사 기법과 항목별 주요 착안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다뤄졌다. 또한 2024회계연도 제주도의 결산자료를 분석해 실제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결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관점에서 결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경기도의회 농수축경제·미래산업 의정 교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연동갑)는 지난 6월 2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상호 의정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제주 전국체전…도민 참여 방안 모색

체육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는 지난 6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 제주 전국체전 도민의식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국체전은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문화 자산 형성, 경제 활성화 등을 동반하는 국가 단위 행사로 도민 공감과 지지가 대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연구는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연구를 통해 체전 이후 경기장 등 체육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활용 전략과 향후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인숙 대표의원은 “도민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전국체전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와 실질적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은 올해 11월 말 완료 예정이다.

교섭단체 ‘미래제주’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원내대표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주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른 시·도의회의 독립 교육위원회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신기한 제주어 ㊴

넹기다

(동사) 남기다

(염마가 들은다) "는 무시거 ᄒᆞ단 죽언 이디 와시니?" "예, 목간탕이서 몸 곰단 ᄂᆞ려젼 뇌진탕으로 죽어젼마씀" "아이구 귓것아, 멩심ᄒᆞ들 못ᄒᆞ엿고나게. 오널부떠 멩심보감이나 웨우도록 ᄒᆞ라" (염마가 다른 이안티 들은다) "는?" "예, 술칩이서 짐 팡팡나는 순대모듬안주 시켜놘 지드리단 갑제기 심장마비로 이디 오랏수다" "아이고 이런, 게민 그걸 맛도 못봣단 말이라? ᄒᆞᆫ저 돌아강 그걸 먹곡 ᄒᆞ꼼 넹경 이레 ᄀᆞ정오라. 한라산 술 ᄒᆞᆫ 펭도 이ᄌᆞ물지 말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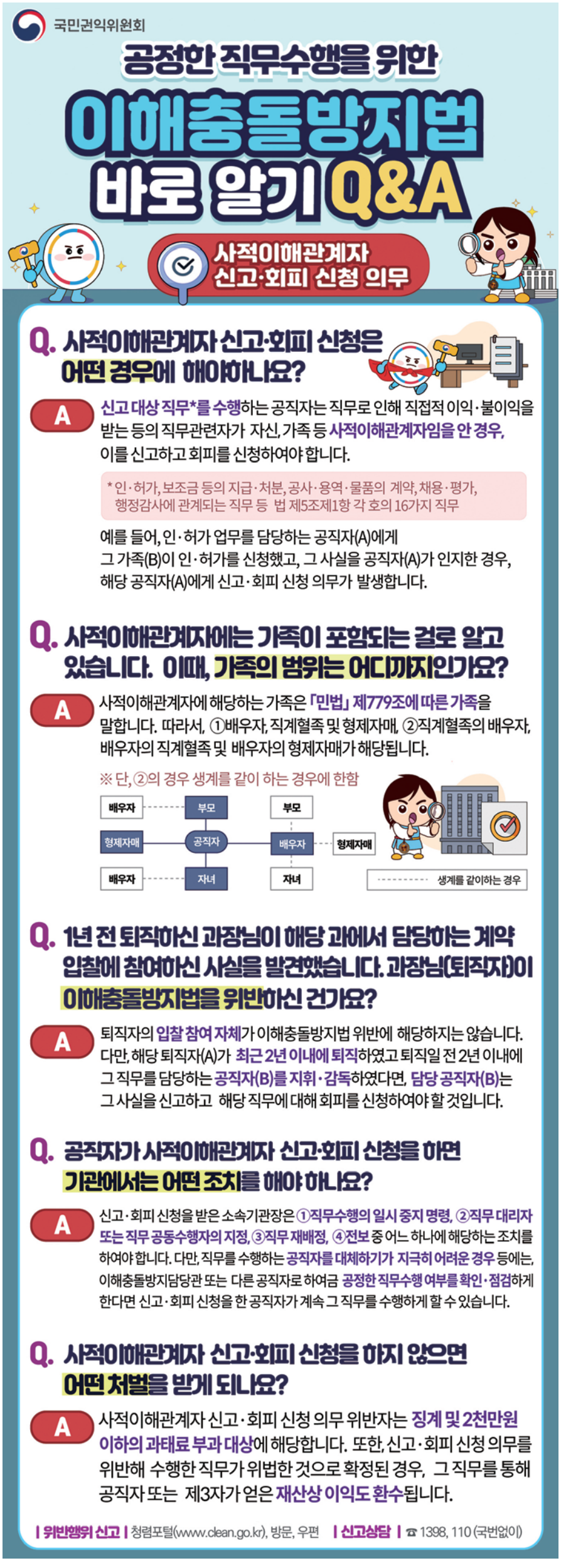
· 염마: 염마대왕
· 는: 너는
· 무시거 ᄒᆞ단: 뭣 하다가
· 와시니?: 왔느냐
· 목간탕: 목욕탕
· 몸곰다: 목욕하다
· ᄂᆞ려지다, 부더지다: 넘어지다
· 귓것아, 귓게야: 귀신아
· 멩심ᄒᆞ들: 명심하지를
· 못ᄒᆞ엿고나: 못했구나
· ~게: 첨사
· 오널부떠: 오늘부터
· 멩심보감: 명심보감
· 웨우도록: 외우도록
· 이안티: 이에게
· 들은다: 묻는다
· 는?: 너는?
· 짐: 김
· 팡팡나는: 퐁퐁나는
· 시켜놘: 시켜놓고
· 지드리단: 기다리다가
· 이디: 여기
· 오랏수다: 왔습니다
· 게민: 그러면
· 못봣단: 못 본
· 말이라?: 말이냐?
· 혼저: 어서, 빨리
· 돌아강: 돌아가서
· ᄒᆞ꼼: 조금
· 넹경: 남겨서
· 이레: 이리
· ᄀᆞ정오라: 가져와라
· ᄒᆞᆫ 펭: 한 병
· 이ᄌᆞ물지: 잊어버리지
· 말곡: 말고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3차 변경)

월 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0회	총 125일 • 정례회 2회 / 48일 • 임시회 8회 / 77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7일 예결위 19일 공휴일 30일	
2월	제435회 임시회	2.18.(화) ~ 2.2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3월	제436회 임시회	3.18.(화) ~ 3.25.(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37회 임시회	4.4.(금) ~ 4.23.(수) (2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6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438회 임시회	5.23.(금) (1일)	본회의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6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6.10.(화) ~ 6.27.(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예결위 6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440회 임시회	7.16.(수) ~ 7.22.(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441회 임시회	9.9.(화) ~ 9.16.(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42회 임시회	10.14.(화) ~ 10.31.(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43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 12.10.(수) (3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26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44회 임시회	12.15.(월) ~ 12.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5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6년 전국체전, 제주 체육 도약 기회

김 창 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지난 5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찾았다. 제주 학생 선수단이 46개의 메달을 따내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체감한 제주 체육 인프라의 현실은 씁쓸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창원시는 공공자전거 운영, 체계적인 선수 지원, 현대화된 체육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지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체육 진흥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노후화된 체육시설과 부족한 학생 선수 육성 체계라는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라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축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주 체육 도약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종합적인 체육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주 체육의 미래는 학교 현장에서 출발한다. 우수 선수 발굴, 전문 지도자 확보,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없이는 체계적 육성이 어렵다. 더불어 학교 체육과 스포츠클럽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주시종합운동장은 1984년에 건립된 시설로, 현재 상당수 공공체육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다. 인구 대비 체육시설 수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일부 노후 시설 보수와 신규 체육시설 확충이 진행 중이나,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 확보하고, 읍·면·동 생활권 내 소규모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촘촘히 확충해야 한다.

셋째,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도민 참여형 스포츠 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체육이 도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체육인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진학과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교육청 및 일반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체육 특기생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력 개발과 직업 훈련 연계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을 갖춘 전지훈련지로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체계적인 전지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해외 스포츠팀 유치를 활성화해 체육과 관광,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6년 전국체전은 제주 체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금은 제주 체육 발전의 골든타임이다. 체육이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지역사회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촉구한다.

먼바다로 나가는 만큼 더 철저하게

김 용 성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계장

국내 연근해 어획량 감소로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원거리 조업 어선은 올해 5월까지 하루 평균 51척, 6월에는 137척 이상 동중국해 등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연안에서의 사고는 구조 세력의 신속한 출동과 인근 민간 선박의 협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원거리 해역의 경우 구조까지 수십 시간이 소요돼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지난 2월과 5월에 740㎞ 이상 떨어진 원거리 해역의 침수·전복 사고가 있었지만, 인근 어선과 해경에서 구조 요청을 받은 중국 해경에 의해 가까스로 인명을 구조했다. 만약 인근에 이들이 없었다면 끔찍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던 사례다.

이런 원거리 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출항 전 철저한 점검으로 장비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상 악화 시 조기 피항으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단독조업을 지양하고 선단 선을 구성해 위기 상황 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원거리에서도 신고기관과 통신이 가능한 위성통신망 설치로 자신의 위치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선단 구성, 위성통신망 설치 의무, 어선 위치통보 제도 강화, 기상 악화 시 이동 대피 명령 이행력 강화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 해양경찰 구조 세력은 예산, 인력, 장비의 추가 확보로 우리 어선이 어느 해역에 있든 경비·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비 범위 확대와 역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즉각 협력할 수 있도록 주변국 수색구조 기관(중국 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색구조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수산계 종사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바다로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적극 활용해야

양 현 진
제주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주무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돼 바다나 하천 등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공정 과정을 통해 음용이 가능할 정도로 정수한 물이다. 재이용수는 장래 심각해질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높이는 대체 수자원의 한 종류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서부하수처리장과 동부하수처리장에 각각 일일 5,000t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는 하수처리장 주변 농가에 농업용수로 무상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기에만 일부 사용할 뿐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법적인 수질기준의 충족과 깨끗함의 여부를 떠나 '하수'를 이용해 만든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가 지하수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인 것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요인일 것이다. 그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처를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면서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재이용수에 대한 도민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앞으로 재이용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의 역할이 더 커져야만 한다.

특히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경우 물 자원이 한정적이어서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심각한 물 부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재이용수의 사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대체 수자원으로써의 역할이 재평가돼 도내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아라중·영주고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 '최우수'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아라중학교, 고등부 영주고등학교가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6월 4~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도내 중등부 11개 팀·77명, 고등부 8개 팀·56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최우수상은 아라중학교가 차지했다. 아라중학교는 '제주 국가유산 무단 훼손 방지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4·3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교육 제안'을 주제로 한 5분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영주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영주고등학교는 '우도 연도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삼무정신과 제주 교육'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서는 등 눈길을 끌었다.

6월 4~5일 본회의장서 경연
중·고등학교 19개 팀 참여해

지역 현안 의제 다뤄 '눈길'
수상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개인 최우수상에 중등부 △제주동중학교 최서우(의장역) △아라중학교 장서연(의원역) △제주동중학교 송효은(5분자유발언 의원역), 고등부 △신성여자고등학교 강하경(의장역) △제주여자고등학교 변재현(의원역) △영주고등학교 정희수(5분자유발언 의원역)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지난 6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상 대상자 중 최우수·우수 단체상 수상자와 지도교사, 최우수 개인상 수상자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중등부 단체상 △우수 김녕중학교 △장려 제주동중학교·서귀포중학교·제주여자중학교. ▲고등부 단체상 △우수 세화고등학교 △장려 오현고등학교·신성여자고등학교. ▲중등부 개인상 △우수 아라중학교 강지안(의장역), 서귀포중학교 정휘민·제주중학교 강지웅·신성여자중학교 김나연(의원역), 함덕중학교 양초아(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탐라중학교 변승현(5분자유발언 의원역). ▲고등부 개인상 △우수 영주고등학교 김가영(의장역), 오현고등학교 최시우·표선고등학교 강지우·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지운(의원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김가윤(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신성여자고등학교 김재연(5분자유발언 의원역). ▲지도교사상 △최우수 김세정(아라중학교), 서문원(영주고등학교) △우수 이은미(김녕중학교), 김태협(세화고등학교) △장려 고수진(제주여자중학교), 김양남(서귀포중학교), 김학용(제주동중학교), 고연진(오현고등학교), 김태삼(신성여자고등학교)

제공노, 이호바다서 플로깅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무원노동조합 도의회지부(지부장 권오성)는 지난 6월 28일 이호해수욕장에서 조합원과 사무처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환경지킴이 플로깅' 캠페인을 개최했다. 제공노 도의회지부는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실천활동인 '플로깅'을 통해 자연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정 제주를 지키는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권오성 지부장은 "도의회지부 회원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솔선수범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데 도의회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과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 정책 실천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상황과 2024년 지방재정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다뤘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 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다뤘다.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 이슈와 도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